



벚꽃만개 운천저수지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주변의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이스 피싱’ 상심 아내 달래려 ‘착한 거짓말’

보이스피싱을 당해 상심해하는 아내를 달래려는 30대 남성의 요청을 받고 경찰이 ‘착한 거짓말’을 한 사연이 만우절인 1일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주부 A(37)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울먹이며 남편(39)과 광주서부경찰을 찾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누이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별 생각없이 돈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시누이로부터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막혀 송금을 할 수 없어. 내가 보내는 계좌로 지금 290만원만 빨리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없이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줬고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왜 전화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숨죽여 울기만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안쓰러

시누이 카톡에 “290만원 송금해달라” 알고보니 해킹계좌 울먹인 아내 보다 못한 남편이 경찰에 ‘만우절 민원’ 부탁 다음날 “돈 찾았으니 안심하세요” 전화에 ‘평상심’ 찾아

운 듯 “왜 전화로 누나인 줄 확인하지 않았어?”라며 재차 물었다.

A씨는 그제야 “돈이 없는 누나가 오죽하면 전화도 못하고 문자로 돈을 빌려달라 했을까”라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확인 전화 할 생각도 못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시누이의 메시지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고 후회했다고 한다.

남편은 이날 경찰 조사 뒤 “아내분의 카카오톡이 해킹당했고, 이체한 돈은 즉시 출금되는 바람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찰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남편은 밤늦게까지 눈물을 쏟는 아내를 다독이느라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날 그는 담당 경찰에게 “아내가 날이 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울기만했다”면서 “제발 형사님이 전화해서 290만원원 찾게 됐다고 거짓말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며 부탁했다. 그는 “아내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라고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며 거듭 요청했다.

담당 경찰은 남편의 아내를 위한 마음을 알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수사 기법으로 돈을 찾았고, 남편에게 경찰서에 들러서 찾아가라고 하겠다”고 했다. “안심하세요”라는 말도 했다.

남편은 퇴근 뒤 과일 상자를 양손에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 “경찰 덕분에 아내가 한층 밝아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를 당하면 통상 당한 사람을 다그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부는 처음 봤다”면서 “아내를 살리겠다는 남편의 부탁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범인을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 해질 18:54 | 달뜨기 16:59 | 달지기 04:58

저녁부터 비소식
늦은 오후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우량 10~4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10/22	보성	9/16	순창	9/17
목포	10/18	영광	10/22	진안	11/18
여수	9/16	영암	10/22	전주	10/24
나주	9/21	진도	11/18	군산	12/23
완도	10/18	진북	10/24	남원	8/22
구례	8/17	군산	12/23	홍산도	9/14
강진	10/18	남원	8/22		
해남	11/18	홍산도	9/14		
장성	8/21				

◇ 바다 날씨

목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동~남동	1.0~2.0	남동~남	1.5~3.0
남해	동~남동	1.5~3.0	남동~남	2.0~3.0
남해	동~남동	0.5~1.5	남서	1.0~2.5
서부	동~남동	1.0~2.0	남서	2.0~3.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남서	1.5~3.0

◇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60
빨래	70

◇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	☁	☁	☁	☁	☁	☁
13/19	12/18	12/18	11/17	7/16	6/15	5/16

‘향토사단’ 31사단 창설 60주년

오늘 장병 등 1000명 참석 기념행사

권혁신 사단장 “지역민 신뢰 최우선”

향토사단인 육군 제 31보병사단(사단장 권혁신 소장)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30분께 사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31사단은 지난 1955년 2월 20일, 6·25 전쟁이 정전으로 접어들던 직후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돼 같은 해 4월 광주로 옮겨왔다. 부대가 광주로 옮겨온 날이 정전된 향토사단의 창설이라는 의미에서 4월 기념행사를 갖는다는 계산을 세웠다.

31사단은 당시 ‘예비병 교육과 전방 부대 병력 충원’을 목적으로 창설, 현재 2514명에 이르는 해안선 경계와 광

주·전남지역 예비군 16만여명의 동원태세 확립 등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사단은 아울러 농번기 대민지원을 비롯, 자연재해, AI·구제역, 기름유출, 세월호 참사 등 지역민이 실의에 빠질 때도 묵묵히 아픔을 함께했다.

31사단은 광주 출신의 의병장인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지난 1989년부터 ‘충장부대’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다.

권혁신 사단장은 “‘강한 군대’, ‘안전한 군대’를 소명으로 삼아 더 가볍고,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민 86%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허용’ 반대

시민단체 550명 설문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시민 10명 중 8명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달 23~26일 시민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사교육 기관으로 가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3%였다.

공교육정상화법에 사교육 기관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하

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담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찬성했고 반대는 10%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가 선행교육의 압박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대학입시에서 영향이 가장 큰 수능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수능 범위를 줄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회 이상민·강은희 의원실이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

국토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항공사에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 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객실 승무원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 있게 하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보궐선거 투표

투표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의 시간 투표 한잔의 여유

※ 만 19세 이상(1996년 4월 30일 이전 출생)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가져가세요.

4월 29일(수)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서구를국회의원보궐선거

보궐선거 실시지역 상무2동, 화정3·4동, 서창동, 금호1·2동, 풍암동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24일(금)~25일(토) 사전투표 하세요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방법|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가지면 투표가능

몸이 불편하거나 서구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는
4월 7일(화)~11일(토) 거소투표신고 후 우편투표 가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